

출판계 '우먼파워'의 속사정

“출판계에 거센 우먼파워”
“출판계, 女性파워시대 활짝”

최근 몇몇 신문지상 문화면을 장식했던 이 기사 제목들이 틀렸거나 부풀려진 것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출판계에 우먼파워는 분명 존재하며, 특히 산술적으로 볼 때 우먼파워의 위세가 거센 것은 사실이다. 편집부원의 과반수를 여성이 차지해온 것이 어제오늘이나 한두군데만이 아닌 출판업계의 '전통'인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명목만이 아닌 실질적인 출판사대표로 활약하는 여성들이 부쩍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같은 출판계 우먼파워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굳이 긍·부정의 이분법

적 시각으로 재단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출판계 우먼파워를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수긍해버리고 말기에 여러가지로 걸리는 바가 많다. 특히 편집부원 등 출판사 '직원'에 문제를 국한시키면, 이 경우의 우먼파워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 의문은 우리에게 출판계 우먼파워 형성의 메카니즘을 꼼꼼하게 되살펴 볼 것을 요구한다. 출판계에 우먼파워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흔히 내세워지는 대답은 있다. 섬세한 감각과 정확성, 인내심을 요구하는 출판편집의 특성상 여성들이 비교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라든가, 출판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적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이유들은 부분적으로는 물론 옳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못된다. 출판계 우먼파워 형성의 가장 큰 이유는 그것들보다는 우리 출판계가 남성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만한 어떤 메리트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급여수준이나 일 자체의 성격이 남성들로 하여금 출판보다는 다른 업종에 눈돌리게 하는데서 일어난, '당연한 우먼파워'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출판계 우먼파워는 자랑거리가 못된다. 출판편집이 요구하는 섬세함과 정확성이 가령 대지의 오식을 칼로 따붙이는 일 따위이나 필요한 자질을 의미한다거나, 혹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남녀평등이란 것이 저임금으로의 평등화를 의미하는 한 출판계 우먼파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강철주 부장

출판저널

등록 제 59호 / 1990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鼎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魯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敏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대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식사자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명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慎鍾廈 安秉永
安輝潯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深 李康淑 李瑞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勝羽 李元靉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賢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계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4월2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봉투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61호(5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현대소설의 '공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여기서의 '공간'이란 소설의 작중무대가 되는 직접적인 지역공간뿐 아니라 작가의 중요한 창작동기가 되었을 작가적 상상공간도 아울러 의미합니다.

문제 1

다음에 제시하는 작가, 작품, 작품의 공간 등 세 그룹의 항목들을 읽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끼리 연결하여 주십시오

[작가] ① 김동인 ② 현진건 ③ 황순원 ④ 김동리 ⑤ 김원일 ⑥ 현기영 ⑦ 조혜일 ⑧ 이정준 ⑨ 박경리 ⑩ 홍희담

[작품] 가) 金藥局的 딸들 나) 마당깊은 집 다) 깃발 라) 곡예사 마) 무녀도 바) 운수좋은 날 사) 감자 아) 아메리카 자) 順伊삼촌 차) 당신들의 천국

[작품의 공간] a) 서울 b) 부산 c) 대구 d) 광주 e) 제주 f) 평양 g) 충무 h) 동두천 i) 경주 j) 소록도

문제 2

다음에 드는 소설들은 모두 江을 그 작품의 주요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각의 작품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江이름을 써주십시오.

- ① 안수길의 「북간도」
- ② 김동인의 「배따라기」
- ③ 이정환의 「셋강」
- ④ 김정환의 「모래톱이야기」

- ⑤ 박경리의 「토지」(특히 제1부)
- ⑥ 채만식의 「탁류」

문제 3

오영수의 「갯마을」과 박경리의 「파시」는 漁村을 작품내의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전광용의 「지층」, 박기동의 「달과 까마귀」, 선우휘의 「노다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위성도시
- ② 광산촌
- ③ 기지촌
- ④ 섬

제57회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7호(3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52통, 이중 정답자는 21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

해드립니다.

칭			목	마	와	숙	너
백	록	담	기		사		
집			상	전	등	신	화
농			산	도	화		라
무	정		유	사		김	초
			화	집			
현	렌		이				사
해	변	의	운	문	집		물
탄	애		열		국	경	의
비	가			황	토		꿈

당첨자

- 정영식(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59 삼성APT 1동316호)
강현미(인천시 북구 작전동 128-8 부호빌딩 다-105)
조금승(광주시 서구 서1동 147-7)
강춘삼(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80-16)
조정우(경북 점촌시 신흥동 225-8)